

戰費조달을 위해 신규 送油管건설을 추진하는 이라크

이라크는 이란·이라크戰의 장기화에 따른 戰費 조달을 위해 사우디 아라비아와 터키를 경유하는 2개의 석유수출용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라크의 戰費조달을 위해 총 2백억달러 정도를 지원해 왔으나, 최근 세계적인 유류수요의 감소와 원유가격의 하락으로 이라크에 대한 지속적인 戰費지원이 어렵게 되자 이라크産 석유의 수출확대를 통해 戰費의 상당부분을 자체적으로 충당케 하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현재 이라크의 석유수출은 이란·이라크戰으로 페르샤만을 통한 수출이 봉쇄된 채 유일한 석유 수입은 터키를 경유하여 지중해로 연결된 80만B/D 규모의 1개 파이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라크가 새로 건설할 파이프라인은 홍해연안까지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은 우선 1 단계로 이라크의 남부유전에서부터 사우디의 동부유전에서 홍해의 안부까지 부설되어 있는 사우디의 기존 파이프라인과 연결하도록 되어 있다. 페르샤만의 라스타누라로부터 홍해의 안부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우디의 파이프라인은 현재 사우디가 총송유 능력 180만B/D 중 실제 가동량은 40만B/D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분간 송유능력에는 여유가 있는 셈이다. 1 단계 공사는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라크는 2 단계로 라스타누라와 안부간을 연결하는 사우디의 기존 파이프라인과 병행하여 150만B/D 규모의 자체 파이프라인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부설공사는 2~3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이라크는 석유수출증대를 위한 단기대책으로 현재 바레인에 정박하고 있는 4척의 석유출하선을 예인해 오려고 하고 있다. 이 석유출하선은

이라크 남부유전에서 생산된 석유를 탱커에 선적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이라크의 석유출하장비는 이란·이라크戰 초기에 이란의 공격으로 모두 파괴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이란의 공격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항하여 이라크는 최근 프랑스에서 도입한 슈페르 에탕다르 전투기로 하르그島의 이란 석유선적장비를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내년 4 월경 이라크는 터키내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20만B/D의 추가수출능력을 보유하게 되며, 또 터키를 통해 가스도 수출할 계획이다. 이라크는 지중해까지 300만B/D규모의 가스 파이프라인의 건설을 위해 현재 터키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협정은 내년 2 월경에 체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가스 파이프라인은 오는 1986년까지 완공될 계획이다. * (The Economist 최근호에서)

이라크의 파이프라인 建設計劃

